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핸들 잡았다 하면 벌써 마음자리

새말귀(新話頭) ④

어째서 새말귀를 갖다가 만들었느냐? 말귀라 하는 건 선, 화두, 화두가 바로 말귀거든. 말 화자하고 머리 두자 하고 바로 말귀여.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말귀라고 번역을 해야 되거든. 새말귀, 신화두라. 이런 뜻에서 했는데 이 말귀, 화두,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 제일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운전수들은 화두 가져서는 안 되거든. 이 화두법이 말이지 생김 지가 한 천년 됐는가 이래요, 그 전에는 없었어. 어느 것 하나 말귀가 아닌 것이 없었지만 요새처럼 화두니 뭐이니 그 개념이 달라졌다 말이야. 이전과는 달라졌어. 부처님 당시와는 달라. 그만큼 달라졌어. 개념이 달라졌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운전수는 안 된다 말이야. 그저 참 큰일났다 말이야. 그러면 법이 아니라 말이야. 그러면 불법 치워야 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직업에 따라서. 또 사람은 직업이 있어야 된다 말이야. 밥 먹을 때 밥 먹을 줄 알아야 이거 직업이라. 잘 때 잘 줄 알아야 되거든. 이거 직업이라 비유해도 괜찮거든. 변소 갈 때 변소 갈 줄 알아야 된다 말이야. 그런데 운전수는 안 된다 말이야. 왜 그러느냐. 벌써 문제가 다르거든. 그러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불법, 이거 화두법 없애버려야 된다 말이야.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물론 자기의 성의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담으로서 본다 할 때면 이걸 안 됐다 말이야. 운전수도 할 수 있는 말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화두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새말귀를 만든 거여.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새말귀라 신화두라. 신화두라 해야 납득이 가. 새말귀라 하면 납득 안 가는 줄도 내 알아.

지금 이거 만든 지가 한 십년 되는데 지금 사람들은 납득 안 할 거여. 화두, 이거 말마다, 여기 꼭 짜달라가 있거든. 화두라 해야 알아. 말귀라하면 이상해. 그것도 내 알아. 그러면 왜 만들었느냐 말이야.

이거는 오십년이나 백 년 후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만들어 놓은 거여. 불법을 믿는 불자라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여야 된다 말이야. 말귀를 만들어냈는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야 사담이

여. 있어. 없는 것이 아니거든. 이거 여러분들 단단히 알아야 돼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얘기가 좀 수월해. 우선 사람이 이걸 가지는데 사람 자체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모르고 화두를 가져봤자 소용이 없어. 그건 대오를 못하는 법이여. 인간이란 얼마나 육신이 어떻다 어째서 육신이 생겼다. 어디서 왔다. 어떠한 작용을 한다는 거. 안이비설신의, 이거 전부 하나의 기관이거든. 이런 기관을 뒤서 일을 하고 모든 걸 다 한다 말이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 이걸 확실히 아는 것이 불법이여. 다른 거 아무 것도 아니여.

그러면 우선 이 육신을 확실히 알라 할 때면 육신, 이거 자체성 없는 거 알아야 돼. 성품 없어. 이거, 성품 없는 것이거

“

새말귀 운전예 비유해보면

손이 핸들을 잡는 것은

지혜가 하는 일

손은 심부름에 지나지 않아

‘운전 잘 해야겠다’ 는 마음

빛깔도 소리도 없는 마음자리

”

든. 성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이거를 거느리는 슬기가 있어. 지혜가 있어. 철과 슬기가 있어. 철과 슬기가 들어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쓰는 거여.

가만히 생각하면 과학적으로 그래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철과 슬기는 어떤 거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없어. 그런데 눈은 눈대로 활동을 하고 귀는 귀대로 활동을 하고 입은 입대로 활동을 해. 발은 발대로 활동을 해. 하는 것 전부 뭐냐 할 때면 이 자체의 슬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 자체는 몰라. 만약 불난 데로 뛰어든다 할 때면 이것도 뛰어들어. 자체 그것이 없으니까. 아이고 겁나서 안 된다 싶으면 이거 안 가져거든.

순전히 하나의 사용기관에 지나지 못한 거여. 이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얼마라도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이제 새말귀를 만들어 놓은 것은, 제일 첫째 운전하는 사람을 비유한다면, 핸들을 가져. 핸들을 가진다 할 때면 이 손이 가지거든. 손이 가진다 할지라도 손은 자체성이 없어. 심부름꾼이라. 핸들을 가져야 되겠다 해야 가지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건 누가 그리 하느냐? 지혜가 그리 아는 거여. 그래서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지혜가 아는 것이거든.

손은 공연히 심부름에 지나지 못해. 만약 그렇다면 지혜의 높음높이지 손의 높음높이가 아니거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해서 운전을 하고 간다 할 때면, 나는 핸들을 잡고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이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마음자리거든. 마음자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어 놓으면 이거 잡아도 그만이라. 이런 자체성 없는 그 자리니까. 그리 하면 벌써 화두거든. 이거 말귀라.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손을 시켜서 손으로 하여금 운전을 한다. 그러니까 사고 안 나도록 내 운전을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 늘 “나는, 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인데, 이 자체성이 없는 손으로 하여금 핸들을 돌리면서 사고 없이 가야 되겠다” 이러면 벌써 핸들을 딱 잡으면 손이 잡는 거 아니거든. 그러나 손이 잡지 않은 것도 아니라. 벌써 핸들을 딱 잡았다 하면 벌써 마음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시켜서 이래 딱 잡는 것이거든.

또 밤에 잘 때는, 육신이 이 기관은 오늘 종일 이리 저리 다니다가 이 시간엔 일을 안 한다 마음자리에서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선을 한다. 얼마라도 선이 되거든. 나중에는 내가 시켰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켰어. 이거 마음 나름이라. 그래서 이제 없어. 그러데 눈은 눈대로 썼어. 모든 걸 다 써. 그런데 밤 되면 쓰지 않거든. 쓰지 않고 그대로 방하차 해버린다 말이야. 해서 편안하게 오늘 선을 해도 좋고 땀을 해도 좋고 이런데 그러기 때문에 요 도리를 알아버리면 여러분들 참말로 견성하는 거 문제 아니여요.

백봉 김기추 거사 기법사업회

성스러운 행동의 가능성이 ‘자유’

④ 참제업장(懺除業障)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佛(一拜)
彌陀身色如金山 相好光明照十方
唯有念佛蒙光攝 當知本願最為強
四句三聚戒圓滿 六意五修為成辨
遠離二邊滅諸罪 等 k-味遊方外
願共諸眾生往生安樂國

업장(業障)을, 자기가 한 짓을 참제(懺除)한다. 이것은 중대한 일이며 육시행원예참문의 예참(禮懺)에 해당하는 대목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짓에 얽매고 장애(障礙)가 되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하는 수가 많다. 업장을 참회하고 제거(除去)해 버리는 사람은 대장부(大丈夫)요, 용단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다.

‘부처님의 몸은 금빛이다(彌陀身色如金山)’ 하였는데 과연 아미타불은 왜 금빛으로 칠해져 있는 것일까? 아미타불 사십팔원(四十八願) 중에 동진금색원(同眞金色願)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들이 다 같이 참된 진금빛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의 얼굴이 부처님의 상호(相好)처럼 눈·코·귀·입 매무새가 모두 찬란한 금빛이라고 한다면 나쁜 것이란 도저히 할래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금(眞金)빛 얼굴은 시장세계에 광명을 놓는 사람의 것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이러한 상호, 이러한 광명의 자리의 끝내 앓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일까. 그것은 오로지 염불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염불하는 사람, 즉 감사하고 보은하는 사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감사할 줄 알고 보은하는 사람은, 그는 이미 평등하고 불변한 진금빛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다.

이 진금색 이야기는 원효대사의 <보살지법종요(菩薩持範宗要)>에 있는 것을 인용하였다. 그리하여 ‘오로지 염불하는 이만, 아미타불의 비원(悲願)을 아는 이만 진금색 자리에 있는다’(唯有念佛蒙光攝當知本願最為強).

또 ‘사구(四句)와 삼취(三聚)가 무르익어 육의(六意)와 오수(五修)의 분별이 서고’(四句三聚戒圓滿 六意五修為成辨. 사구는, 칠불통계(七佛通戒)의 사구라고 일컬어 옛날 칠불 때부터 오늘날까지 부처님 사이에 전해 내려 오는 사구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諸惡莫作 악한 일이란 아예 하지 말고
衆善奉行 착한 일을 모두 행하며
自淨其意 스스로 그 정신을 맑힌다.
是諸佛敎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악한 일이란 어떤 것이라도 하지 말고 선행은 모두 다 해라. 그러니까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말씀이다. 삼취(三聚)는 유가(瑜伽)와 십지경(十地經)에 있는 말인데 삼정계(三淨戒)를 이른다. 이는 섭율의 계(攝律儀戒), 계율은 모두 맞추어 지켜야 한다. 섭중생계(攝衆生戒), 모든 선행을 다 해야 한다. 섭중생계(攝衆生戒),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는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의 요약된 구경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

이번 여의고 중도 얻은 뒤

자재로운 해탈에 들어간다

해탈이란 자유로운 행동이다.

속박과 번뇌에서 벗어나

죄·업장 뒤따르지 않으면

자유라 부른다

”

이다. 계(戒)실라(Sila)는 인간으로서 바랄 수 있는 원만한 최상의 윤리다.

앞의 계율이 소극적인 금지 규정인데 비하여 육바라밀은 능동적인 행동의 규범이다. 보시(布施)·지계(持戒)·인욕(忍辱)·정진(精進)·선정(禪定)·반야(般若)의 육바라밀을 삼지오수(三祇五脩)한다고 말한다. 삼지(三祇)는 삼아승지(三阿僧祇), 아승지가 세번 거듭된 것, 시간적으로 무량·무수겁(無量·無數劫)을 세 번 지나야 된다. 오수(五脩)는 십신(十信)·십주(十住)·십회향(十廻向)·십지(十地)의 다섯 가지 수행의 계단이다.

‘두 극단을 멀리 여의어 죄업을 모두 없앤다’(遠離二邊滅諸罪). 우리는 참회하여 업장을 제거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더 나아가 이변(二邊)을 멀리 떠나 버려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원효대사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든 계율을 지키는 목적이 이변이라는 두 극단을 여의어 중도(中道)를 얻는데 있다고 한다. 이변을 여의고 중도(中道)를 얻은 다음에는 자재(自在)로운 해탈(解脫)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해탈이란 자유로운 행동이다. 속박과 번뇌에 벗어나 죄·업장(業障)이 뒤따르지 않는, 성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나는 비구(比丘)의 이백 오십계를 닦는다. 저 사람은 그것을 못하니 비구가 아니다. 불제자(佛弟子)가 아니다, 이런 말하고 사람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세가지는 대승보살계(大乘菩薩戒)의 요약된 구경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원효대사는 말씀하시기를 계율은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하셨다. 계율이 법률의 경우처럼 애초의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계율의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유와 자재와 해탈을 얻게 하는 데에 있다. 만일 이러한 목적을 이탈하여 계율에만 얽매어 있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수행자로서 그릇된 생각이므로 버려야 한다.

결국 문제는 등산일미유방외(等 k-味遊方外) 즉, 일미를 먹고 자재(自在)로 와진다는 데 있다. 유방외(遊方外)는 자유와 해탈과 자재로운 지경을 획득한다는 것, 우리가 속박을 받으라고 부처님이 계율을 마련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번처중(二邊處中) 하고 각행(覺行)이 공만한 다음에 우리들로 하여금 역시 부처다운 자유와 자재를 얻게 하려던 것이다. 무애자재라고 하면 이것은 벌써 모든 업장(業障)이 참제(懺除)된 때를 이른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면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효 재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 실려있는 것입니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무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포츠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물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면) 8cm]

